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

# 空士新聞

제364호

2022년 10월 7일(금요일)  
(창간: 1957. 10. 10.)

| 발행인 이상학 | 주간 박근형 | 부주간 김인승 | 편집국장 박예성 | 발행 공군사관학교(공사신문사) | TEL 043)290-6099 | 주소 2818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635 사서함 335-1호

## 패기(霸氣), 뜨거울 때 뜨겁게

### 4주간의 하계군사훈련 수료

지난 6월 21부터 7월 13일까지 공군사관학교에서 1~4학년 생도들을 대상으로 2022년 하계군사훈련을 진행했다. 매년 4주간 진행되는 군사훈련을 통해 사관생도는 유능한 간부로서 요구되는 전투체력과 군인정신을 함양하고 공중·지상·해상에서의 생존능력 및 실무수행 능력을 구비하게 된다. (2면에서 계속)



## 1, 2학년 생도 국토순례 더욱 굳건해진 조국 수호 의지

지난 7월 18일, 4주간의 하계군사훈련을 마친 1, 2학년 생도들은 2박 3일간 국토순례를 떠났다. 국토순례는 사관생도의 호연지기 배양 및 조국 수호 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하계군사훈련 후 실시된다.

1학년 생도들은 국토의 서쪽인 백령도로 향했다. 1일 차에는 공군 제309 관제대대를 방문하여 백령도와 그 주변 지형에 대한 설명을 통해 백령도의 지

리적, 군사적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또, 지대공미사일 시설을 견학하기도 했다.

2일 차에는 육군 제111 항공대를 방문해 공격 헬기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견학했다. 또, 천안함 위령탑을 방문하여 우리의 오늘을 만들어준 영웅들의 호국정신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서북도서를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제6여단을 방문함으로써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2학년 생도들은 국토의 동쪽인 울릉도와 독도로 향했다. 1일 차에는 울릉도 곳곳을 탐방하며 통구미, 사자바위, 코끼리바위, 나리분지 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2일 차에는 국토의 최동단인 독도로 향했다. 곳은

날씨로 인해 독도에 접안하지는 못했지만 선상에서 우뚝 솟은 독도를 바라보며 국토수호에 대한 높은 결의를 다시금 되새기는 기회를 가졌다.

3일 차에는 울릉도의 성인봉 등정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3시간에 걸친 산행 끝에 성인봉 정상에 도착한 생도들은 공군 제319 관제대대를 견학했다. 관제대대에 방문하여 레이더와 임무 장비 등을 소개받으며 평소부대 운영의 중요성과 임무 장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해군 제118 전대 방문을 통해 해군작전에 대한 이해와 합동 작전의 중요성을 재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도기자 73± 김 민/수습기자 74± 김영환  
7513211@mnd.go.kr

(1면에서 계속)

하계군사훈련의 목적은 공군 장교로서 갖춰야 할 강인한 체력과 함께 부대 기본훈련 및 군사 실무수행능력 향상, 항공적성 함양 및 생존능력 구비, 군사훈련에 대한 지휘 및 지도능력 숙달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군사관학교는 학년에 따라 취득해야 할 목표를 단계별로 설정하고 있다.

1학년은 항공적성함양 및 수중·지상생환능력 숙달, 2학년은 전투체력 증진과 해양생환능력 숙달, 3학년은 공중생환능력 숙달, 마지막으로 4학년은 비행환경적응 및 기본 비행절차 숙달을 각각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설계된 세부적인 훈련 과정 또한 학년별로 다르다. 1학년은 패러글라이딩 훈련과 수중 및 지상생환훈련을, 2학년은 유격 및 해양생환훈련을, 그리고 3학년은 공중생환훈련을 수료해야 한다. 전(前) 년도에 공중생환훈련을 수료하지 못한 4학년은 3학년과 함께 공중생환훈련을 수료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소한의 군사훈련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면 관속비행, 비행환경적응훈련을 한다.

「2022 기본군사훈련 경연대회」는 예년과 달리 따로 진행하지 않고, 학년별로 4주 차 때 시행하는 기본군사훈련 중에 개최됐다. 본 지에서는 특히 그 훈련 강도가 높았던 1~3학년의 군사훈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계군사훈련에서 학년별 동기회장들은 훈련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동기들을 책임지며 훈련 과정에 임한다. 입학 후 첫 하계군사훈련을 수료한 1학년 1학기 동기회장 배강민 생도는 “훈련에서 복귀해서도 일하고 다음 날 인원과악부터 청소까지,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다”라며, “그럼에도 모두가 힘들 때 희생하는 것은 분명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유격을 끝마친 2학년 1학기 동기회장 김민규 생도는 “작년과는 달리, 새벽에 진행된 유격 훈련으로 인해 03:50에 아침점호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 솔직히 부담스럽기도 했다. 그렇지만 동기들을 위해 정상적인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버틸 수 있었다. 그 누구보다 뿌듯하고 후련했다고 자신할 수 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현재 육군사관학교에 파견 중인 3학년 1학기 동기회장 박승현 생도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버티기 위해선 체력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도 공수기간 내내 동기들과 선후배님들로부터 크고 작은 도움과 응원을 정말 많이 받았다. 특히 72기 동기들한테 너무 고생했고 정말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소감을 전해 왔다.

생도기자 72± 최성영  
7513165@mnd.go.kr

## 1학년 (74±)

## 패러글라이딩훈련, 수중생환훈련, 지상생환훈련

1학년 생도들은 첫 2주간 공중환경을 체험하기 위한 3차원 공간 적응과 패러글라이딩 실습을 마친 후, 수중생환훈련을 실시하였다. 패러글라이딩 훈련은 지상에서의 이·착륙 동작 습득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50m까지 고도를 높이는 이·착륙 훈련 및 공중

조작 훈련으로 구성된다. 비행 기량이 우수한 생도에겐 약 432m 높이의 성무봉에서 단독비행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였다. 향후 조종사에게 필요한 수중생환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수중생환훈련은 생도들의 수준별로 반을 나누어 이에 맞는 훈련목표를 달성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주 차에 진행된 지상생환훈련은 독도법, 매듭법, 생활장구 사용법, 음식물 구득법, 행군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1학년 생도들은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생환능력을 습득했다.



## 공사 생도, 전국 대학생 모의UN회의 수상

공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 6명은 지난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간, 포항에 위치한 한동대학교에서 열린 ‘전국 대학생 모의UN회의’에 참가했다. ‘전국 대학생 모의UN회의’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 UN회의의 양식과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해 하나의 통일된 결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회다. 각 학교를 대표하는 대학생들은 각기 다른 세부 의제를 다루는 위원회에 참가하여 특정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단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공사 생도들은 2019년 이후 첫 대면회의로 재개된 이번 대회에서 모든 참가 팀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박예성(국제관계학과), 양은아(항공우주정책학과) 생도는 스웨덴 대표단으로서 ‘COVID-19 상황 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 마련 방안’을 주제로 한 2위원회에서 최우수상을, 배대운, 문채현(국제관계학과) 생도는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국제 노력’을 주제로 한 3위원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김태영(국제관계학과) 생도는 전년도 대회 대상 수상자로서 3위원회 의장의 역할을 맡았으며, 민수경(항공우주공학과) 생도는 대회를 참관하는 옵저버로서 대회에 참가했다.

문채현 생도는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고 고단했지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신 지도교수님들 덕분에 끝까지 지치지 않고 대회의 전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생도기자 71± 박예성  
75128638@mnd.go.kr



시상식 후 수상을 기념하는 모의UN대회 참가 생도들의 모습

2학년 (73±)

유격훈련, 해양생환훈련

2학년 생도들의 유격훈련은 경남 진주 교육사령부에서 진행되었다. 오전 03:50 아침점호를 시작으로 6월 21부터 6월 29일간 유격·근접전투기술훈련이 실시됐다. 유격훈련은 실제 상황에서 생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배양하고 적과의 1:1 상황에서의 전투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격훈련은 크게 유격제조와 장애물 극복 훈련으로 이루어진다.

이후, 7월 4일부터 8일까지 대천 공군사격지원대에서 해양생환훈련을 진행하였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수준별로 A, B, C1(홀수 중대), C2(짝수 중대)로 반을 나누어 파도타기, 호흡법, 평영, 입영, 비상용 보트 탑승 훈련 등을 통해 실제 해양환경에서의 대처요령을 체득하였다.



3학년 (72±)

공중생환훈련

공군사관학교 훈련의 꽃이라 불리는 공중생환훈련은 약 3주간의 고강도 낙하산 강하훈련을 통한 공중생환 역량 함양을 목표로 한다. 6월 21일의 입과식부터 7월 7일의 수료식은 충청북도 청주시 정보교육대대 공수훈련장에서 진행되었다.

1주 차에는 공수 체조, 낙하산 장구 숙달 및 낙하·착륙 시 제동작(PLF) 습득 교육이, 2주 차에는 약 10ft

높이에서의 Mock Tower 강하훈련, 재집결 훈련, 산체전복 시 대응법 및 예비낙하산 사용법 교육 등이 이루어졌다. 마지막 3주 차에는 강하법 평가 및 공중강하가 이어졌다. 7월 6일에 212대대에서 수송기 c130 강하 1회를 실시 후, 7월 7일 185명의 생도는 비로소 정복에 은빛 공수왕(공중생환훈련 수료 시 받는 낙하산 모양의 부착물)을 다는 기쁨을 만끽하였다.



## 제75기 선발 1차 시험감독

### 성공적인 임무 완수 뒤에 숨겨진 노력

지난 7월 30일, 공군사관학교는 제75기 사관생도 선발을 위한 1차 시험을 전국의 16개의 고사장에서 실시하였다. 1차 시험은 신입생 선발의 초석이자 그 과정에서 일말의 오류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만큼 시험 관계관의 책임이 막중한 임무다. 공군사관학교 평가관리실에서는 1차 시험이 생도 하계휴가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도 하계휴가 시작 전인 7월 12일, 안중근홀에서 시험감독 사전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 후에는 방송 시간표, 감독관별 업무, 돌발상황 시 대처 요령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대비한 지침서를 배부함으로써 시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였다.

고사장별 역할 배정의 경우, 수험생이 시험을 응시하는 교실 내에서 직접 시험을 감독하는 감독관(정)은 시험감독 경험이 있는 3학년 생도 위주로, 감독관(부)과 수험생 안내를 위한 감독지원 요원은 1, 2학년 생도 위주로 편성되었다. 이외에도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지원 요원과 출입 통제를 위한 군사경찰이 여러 공군 부대에서 지원

되었고, 시험 전일 몇몇 고사장은 비대면 회의 플랫폼인 웹엑스(Webex)를 통해 수차례 감독관 교육을 진행하여 사전 점검하였다.

시험 당일, 각 지역에서 출발한 시험 관계관들은 고사장별 통제본부에 오전 7시까지 집합 후 마지막 고사장 사전 점검을 하였다.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고사장이 개방된 오전 7시 30분부터 마지막 교시가 끝나는 오후 1시 30분까지 수험생 안내와 수험표와 신분증 확인, 시험지 분배 및 수거 등 모든 인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수험생들이 돌아간 후에는 고사장으로 사용된 교실의 뒷정리 후, 수거한 답안지가 부대에 안전하게 도착하고 나서야 감독 업무가 완전히 종료되었다.

성공적으로 첫 시험감독을 마친 74± 문강희 생도는 “긴장하면서 시험 문제를 푸는 미래의 후배들을 보며 수험생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다”며, “그때의 간절함을 잊지 않고 학교생활을 소중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74± 김동혁 생도는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이 의미 있었음을 앞으로의 생도 생활을 통해 증명해 보이고 싶다”는 다짐을 밝혔다.

생도기자 73± 이유진  
7513328@mnd.go.kr



# 생도전대장님께 듣는 사관생도 생활규정 개정 소식

2022년 2학기에 접어들면서 생도 생활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일과 중 스마트폰 사용 허가를 비롯해 공강 시간 생활관 이용, 생도식당 내 중대 식탁제도 폐지 등 생도 생활과 밀접한 변화들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을 포함해 이번 학기에는 생도 생활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규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군사신문사에서 이번 사관생도 생활규정 변화의 배경과 세부사항을 살펴보고자 생도전대장 박군형 대령을 인터뷰하였다.



## Q 이번 생활규정 개선의 배경이나 취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생도 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학과공부와 군사훈련, 생활교육 등 바쁜 일과를 병행해야 하기에 생도들이 스스로 충분한 휴식과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도들이 부여된 일과와 학업을 충실하고 활기차게 수행하려면 ‘재충전’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할 땀 하고, 쉴 땀 쉬는’ 사이클이 잘 잡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규정 개정작업에서는 생도들의 휴식여건 보장을 포함한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보호 등 시대 변화에

발맞춰 현재 군이 발전시키고 있는 제도 개선 사안들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Q 생도 생활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관생도 생활규정은 갑자기 바꾸자고 해서 곧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정을 적용받는 생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하고 훈육 요원들과도 교육 적절성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뀐 규정이 일회성에 지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시각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 제가 훈육 요원이었던 시절 제정된 생도들의 사복 외출 규정이 얼마 못가 폐지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생도들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관생도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 개정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마치게 되면 법무실, 양성평등센터 등 외부의 심의를 거쳐 다른 사관학교 및 각 학교 부서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정작업은 아마도 올해 말쯤에 여러분에게 전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규정 개정작업을 위해 훈육 요원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함께 심사숙고하며 노력하고 있음을 생도들이 알아줬으면 합니다.

## Q 규정을 개정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한 것은 무엇인가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공군사관생도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생도들이 받아들일 때에도 “어? 규정이 바뀌었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생도 스스로가 규정 개정의 취지와 목적을 정확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현재 공군의 핵심가치에 맞도록 학년별 motto(座右銘)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변화의 폭이 클 예정인 만큼, 규정 개정의 결과로 인해 생도대의 문화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생도들이 생도의 품위와 자부심을 지키면서도 건전하고 생도다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 Q 규정서 중 어떤 내용을 검토 중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검토 중인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불명확하거나 공인되지 않은 내용이 전파될 경우 생도들 사이에 유언비어가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공언할 수 있는 것은 사관생도 생활규정 및 생활지침서를 전면 검토하고 있고, 눈에 띄게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생도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기 위해 생도 생활 발전위원회의 건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니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의견들을 반영하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상위 규정, 예산 등에 따른 제약도 존재함을 조금은 이해해줬으면 합니다. 다만 여러분의 건의사항 중 저희가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왜 그러하였는지에 대한 이유도 차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Q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사관생도 규정은 목적보다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목적 상’이라는 명목으로 생도 생활이나 선후배 인간관계가 불필요할 만큼 어려워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생도 상호 간에는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도들이 항상 공사생도로서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애교심과 애국심으로도 자연스럽게 발현될 것입니다.

끝으로, 허심탄회하게 인터뷰할 수 있도록 해준 군사신문사에 감사드리고, 규정과 관련된 어떠한 의견도 좋으니 생도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도기자 73± 전영욱  
7513360@mnd.go.kr

## 하늘과 땅, 하나로 뭉치다!

### '22년 육군3사관학교 4학년 합동 교육

지난 6월 28일과 30일, 공군과 육군 간의 합동성 강화 및 교류 증진을 위해 육군3사관학교 생도들이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하였다. 양일간 이루어진 합동 교육은 육군3사관학교 4학년생도 490여 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교육의 효과성을 고려해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하루씩 교육을 진행하였다.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각 군 사관생도들은 이번 합동 교육을 통해 타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방문은 육군3사관학교 생도들의 공군의 임무·역할·작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육군3사관학교 생도들은 영원한 빛 참배를 시작으로 천문대와 공군박물관을 비롯한 교내 견학 및 모의 비행 훈련(PARE, The Pilot Aptitude Research Equipment)과 같은 체험활동에 참여하였으며, 공군작전 강의를 수강하고 생도들 간의 친교 활동도 가졌다.

기존의 합동 교육보다 짧은 기간과 코로나-19의 제약 속에서도 각 군 사관생도들은 타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값진 기회였다고 전했다. 박준홍 생도(8중대 4학년)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들과의 합동 교육을 통해 평소 궁금했거나 접하기 어려웠던 육군 문화를 접할 수 있었고, 동시에 색다른 동료애를 느낄 수 있는 시



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인연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생도기자 71± 배대운  
7512877@mnd.go.kr

## 학과소개

## 컴퓨터과학과



## 미래 국방의 선두주자, 컴퓨터과학과

최근 사이버 공간이 제5 전쟁 영역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이 공간을 다루는 컴퓨터과학은 미래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학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공군사관학교 컴퓨터과학과에서는 전 생도를 대상으로 프로그래밍/사이버전(戰) 수업을 진행한다. 나아가 전공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사이버전 및 무인무기체계 등의 미래 전장을 이해하고, 정보처리체계의 유지/발전 및 정책 수립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컴퓨터과학과장, 유승훈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유승훈 소령

## Q. 본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컴퓨터과학과장 유승훈 소령입니다. 공군사관학교 54기로 임관하여 작전정보통신단(구 작전전산소)에서 항공작전 관련 프로그램 개발 임무를 수행하다가 교수요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생도 시절에는 컴퓨터과학을 전공하였고, 석사와 박사는 모두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서 공부하였습니다.

## Q. 컴퓨터과학과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컴퓨터과학은 ‘계산하다’는 뜻의 영어 단어인 compute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계산 기계’와 ‘계산’에 대한 학문입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매우 빠른 계산 기계’가 특정 자료를 계산한 결과를 사람이 인지하고 다룰 수 있는 형태로 가시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공 과정에서는 자료를 어떤 구조로 다루어야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같은 자료를 어떻게 해야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지, 계산 기계를 어떻게 설계해야 좋은지 등에 대해서 주로 학습하게 됩니다. ‘코딩’ 또는 ‘프로그래밍’은 어디까지나 계산을 표현하는 수단 중 하나일 뿐이기에, 커리큘럼에서 직접 학습 대상으로 삼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이뿐 아니라 현시대 주요 전장 중의 하나인 사이버 환경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됨에 따라, 이를 학습할 수 있는 ‘사이버전(戰)’도 역시 공통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Q. 컴퓨터과학과의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컴퓨터과학과에서는 국방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전공 심화 과목을 ‘AI 융합’과 ‘사이버전(戰)’ 두 개의 트랙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3학년 1학기까지는 자료구조, 알고리즘, 컴퓨터구조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등의 필수 과목을 공통으로 학습하고, 2학기부터는 선택한 트랙의 심화 과목만을 이수하게 됩니다. AI 융합 트랙에서는 웹,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 관련 과목을 학습하여 졸업 전에 독창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이버전 트랙에서는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 보안 관련 지식 및 기법을 학습하여 ‘사이버 작전 경연대회’ 등 각종 사이버전 관련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 Q. 컴퓨터과학과만의 차별점이나 경쟁력이 궁금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경쟁력은 효율적으로 계산을 수행하여 ‘결과를 빨리 얻어 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더라도 전공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더 정확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 다른 관점에서는 ‘빠르게 정확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마다 달라지는 요구사항들과 하루하루 발전하는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언어 등 급변하는 최근 프로그램 개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익숙해져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 역시 차별점이라 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경쟁력은 논리적이고 단계적인 사고 능력입니다. 컴퓨터에 계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컴퓨터가 사람처럼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쪽 보행 로봇을 전진시키고 싶다고 할 때, ‘전진’이라는 명령을 ‘먼저 오른쪽 다리를 움직이고 다음에 왼쪽 다리를 움직인다’는 명령으로 단계화한 후, ‘다리를 움직인다’를 다시 ‘발을 떼어 앞으로 30cm 옮긴다’는 식으로 더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능력은 훗날 리더로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지시해야 하는 생도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역량입니다. 조직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석을 거쳐 그 해결 과정을 단계화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직원들에게 특정 과정을 위임하는 모습은 프로그래밍과 매우 유사합니다. 컴퓨터과학과 전공 커리큘

럼에서 ‘계산’을 제대로 학습하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표현하는 법을 열심히 연습한다면, 이러한 사고 과정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 Q. 많은 생도들이 파이썬과 코딩을 어려워합니다. 이러한 생도들에게 추천할 만한 도서 및 공부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래밍 과목에서는 ‘컴퓨터에 명령한다’에 익숙해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학습하는 파이썬은 자연어(영어)에 굉장히 가깝고 간결한 형태이기 때문에 시작이 막막하다면,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국어로 써놓고, 그것을 한 문장씩 차근차근 프로그래밍 언어로 번역해 보기 바랍니다. 다행히 프로그래밍 문법은 매우 정형화되어 있어서 문법이나 단어가 잘못되었을 경우 본인의 코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표시해준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3시간이 채 되지 않는 정규 수업시간에만 다루어서 익숙해질 정도로 다루게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자율 학습 시간에 교과서의 예제나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들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영어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초보적인 수준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래밍 문제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보여주는 에러 메시지만 읽으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프로그래밍 실습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컴퓨터는 사람이 아니기에 알아서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랍니다. 에러 메시지를 읽고 능동적으로 점검하세요. 처음에는 이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시간이 단축되고, 이 경험들이 프로그래밍 실력 향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도 모르겠다면 인터넷(구글)에 에러 메시지를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문제라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프로그래밍 커뮤니티 사이트에 질문을 올리거나 컴퓨터과학과 교수에게 문의해도 됩니다.

## Q. 컴퓨터과학과 졸업생의 진로나 미래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컴퓨터과학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특기는 아무래도 정보통신 특기일 텐데, 저처럼 직접 프로그램 개발 임무를 수행하는 임무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최신 컴퓨터 및 정보 기술의 군내 도입과 활용뿐 아니라 항공기에 내장된 컴퓨터의 역할은 날로 증대되고 있기에 조종, 항공통제, 항공무기정비 등의 특기에서도 컴퓨터과학과 관련된 지식의 유용성이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컴퓨터과학 전공을 거치면서 체득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 능력은 어떤 특기를 받고 어떤 자리에서 일하든 도움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또 다른 장점은, 학위과정 위탁교육 지원 시 다른 전공에 비해 기회가 많다는 점입니다. 정보통신 특기는 물론이고 조종, 항공통제, 항공무기정비, 기상, 정보, 인사교육 등 생각보다 많은 특기에서 컴퓨터과학 관련 전공으로 석사과정 위탁교육 요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 Q. 마지막으로 컴퓨터과학과를 꿈꾸는 이들을 위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컴퓨터과학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생도들의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면적인 상황변화에 휩쓸리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것을 공부하고 싶은지, 무엇이 되길 원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습득하여 전공을 포함한 진로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했다면, 그 길 위에서 진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도기자 73± 김주연  
7513235@mnd.go.kr

## ▶ 국외 위탁교육제도 소개

## 독일 장교학교

공군사관학교에는 위탁교육제도가 있다. 이는 공사 생도가 외국 사관학교 및 교육기관에 입학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 독일, 일본, 터키 등 4개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매년 3학년 생도 1명을 선발하여 한국 공사 졸업 후 독일 장교학교에 파견하고 있다. 다음은 독일 장교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복귀한 69± 임성일 중위와의 인터뷰다.



## Q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9기 7중대 출신으로 2021년에 한국 공사를 졸업한 중위 임성일입니다. 2021년 1월부터 독일에서 위탁교육을 시작하여 2022년 5월에 수료했습니다.

## Q2 독일 장교학교의 학과 및 훈련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독일 장교학교 위탁교육 과정은 어학 과정(6개월), 공군 기본군사 훈련(3개월), 공군 장교교육 과정(8개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학 과정은 독일 연방 어학원에서 외국군 수탁 생도를 대상으로 독일어 교육을 진행하며, 이후 실시되는 평가에 일정 수준 도달하여야 장교학교



에 입과할 수 있습니다. 기본군사 훈련은 공군교육대에서 진행하며 주요 훈련과목으로 기초체력 평가, 장애물 극복, 야영 훈련, 화기학 및 사격, 응급처치법 등이 있습니다. 이후 독일 장교학교에 입학하여 지휘 교육, 교관교육, 연방군 기초교육, 공군교리, 군법 등의 장교 전문역량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관리, 독일 역사 및 정치, 헌법 등의 사회적 역량을 위한 과목들도 교육도 이수합니다.

## Q3 독일 공군과 한국 공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우선 독일군은 임무형 지휘방식을 기본 교리로 하면서 모든 교육과 훈련을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합니다. 응급처치 훈련의 경우 교전 중 처치, 교전 후 처치, 전술적 후송 등 실전에서 정말 필요한 세분화된 내용을

배웠는데, 이러한 점은 한국 공사의 교육과정에도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독일군은 상관과 부하의 관계가 수평적입니다. 상관은 부하를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존재가 아닌, 생사를 함께하는 동료라고 생각하고, 부하는 상관을 열린 태도로 대하기 때문에 나이와 직급에 상관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여 친분이 있는 사이더라도 업무를 처리할 때는 옳은 것은 칭찬하고 틀린 것은 비판하는 것이 당연시되며, 일과가 끝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소의 관계로 돌아간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 Q4 독일 장교학교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처음 독일 위탁교육을 준비할 때만 해도 낯선 독일어와 타향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위탁교육이라는 이 기회를 놓쳤다면 평생 두고두고 후회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위탁교육을 통해 공군에서 드문 독일 전문가가 될 수 있었고 타군을 경험하며 제 식견을 넓히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꼭 도전하세요. 위탁교육은 사관학교에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기회입니다. 그리고 독일어 공부를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녁점호 시간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꾸준히 공부하면 독일에 왔을 때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위탁교육을 마치고 돌아온 지금 가장 미련이 남는 것이 어학 능력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언어의 귀와 입이 트이는 데 8개월이 걸렸기에 그 8개월 동안 배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지금부터 어학 능력을 키워서 오신다면 훨씬 더 값진 것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습기자 74± 이유상  
7513548@mnd.go.kr

## 미국 공군사관학교



다음은 미국 공군사관학교의 교환학생 Kevin생도 인터뷰다.

## Q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evin Seo 입니다. 한국 이름은 서윤기이며 뉴욕주 뉴저지 출생입니다. 미국과 호주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현재 미국 공군사관학교 4학년생도 임니다.

다. 이번 학기부터 한국 공군사관학교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은 국제관계학이고 정치에 관해 심도 있게 공부 중입니다.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데 특히 골프와 복싱을 좋아해요.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 Q2 사관생도가 되고자 결심한 계기를 알고 싶습니다.

어릴 적부터 Leader와 Leadership에 관심이 많았어요. 더불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 군인의 꿈을 꾸며 미국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조종사보다는 군인이 되고 싶은 게 더 컸습니다. 그 꿈을 안고 미 공군을 발전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 Q3 한국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 공군의 문화, 한국 군인들의 생활 모습 등이 궁금했습니다. 한국 공군사관학교가 생도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도 궁금했구요. 한국에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을 기억에 남겨둘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가 장교로 임관하면 제가 배웠던 한국 공군 운영의 장점을 반영해 부하들을 지휘할 것입니다.

## Q4 미국 공군사관학교의 학과 커리큘럼을 간략하게 소개해주세요.

우선 전공이 매우 다양해요. 20가지 이상 전공이 있고 순수학문, 심리학 등 한국 공군사관학교에는 없는 전공들도 있죠. 일반 대학교와 개설 전공 수에 차이가 없습니다. 학년에 상관없이 본인이 관심 있는 수업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가령 수학, 과학, 영문학, 몇몇 공학, 언어 수업은 필수입니다. 한국보다 1시간 빠른 07시 20분에 수업이 시작됩니다. 공부량이 꽤 많아 반드시 예습/복습을 해야지만 수업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 Q5 미국 공군사관학교의 체육 및 군사 훈련 교육 커리큘럼을 간략하게 소개해주세요.

수영, 복싱, 주짓수, 웨이트 트레이닝, 팀 스포츠, 개인 스포츠는 필수로 수강입니다. 수영 수업을 이수하고 나면 인명구조/전투 수영 훈련 역시 반드시 이수해야 해요. 한국의 경우 하계 군사 훈련 기간에 전교생이 일괄적으로 의무적인 훈련을 받고 훈련의 내용은 학년별로 상이하더군요. 미국의 경우 Airmanship 프로그램만 일괄적으로 이수하고, 그 외 훈련의 경우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학교에 요청하여 이수합니다.

## Q6 미국 공군사관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미국 공군사관학교의 생도들은 두 개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기준으로 생도 생활을 합니다. 하나는 'Core values: integrity first service before

self and excellence in all we do', 다른 하나는 'Honor code: we will not lie, steal or cheat nor tolerate among us anyone who does' 입니다. 즉, 번역하면 핵심 가치는 '자신보다 타인에게 먼저 성실하게 봉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탁월하다', 명예 규정은 '우리는 우리 중 누구라도 도둑질이나 거짓말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이 가치를 통해 미국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명예롭지 못한 행위를 경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장교가 되고자 하는 사관생도의 정신을 잘 표현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 Q7 한국 공군사관학교의 일과, 미국 공군사관학교와 어떠한 점이 비슷하고 어떠한 점이 다른가요?

전체적인 일과 내용 및 시간은 비슷합니다. 기상 시간도 비슷하고 학과 수업 마치는 시간도 비슷합니다. 다만 1학년 생도의 일과에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미국 공사의 1학년 생도는 다른 생도들보다 15분 정도 일찍 일어나 복도로 나와야 합니다. 복도로 나와 '필수 암기 사

항'을 외우고, 숙지 상태를 선배 생도들에게 검사받습니다. 미국의 경우 교직으로 사복 소지를 허용합니다. 일과 시간이 끝나면 사복을 착용할 수 있고, 사복을 입은 채로 외출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학년 생도는 예외입니다. 그들은 항상 보급받은 피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공군사관학교에 와서 보급 피복만을 입다 보니 다시 1학년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웃음)

군사 훈련 시간 역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미국 공군사관학교에는 학년별 군사 훈련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장교가 아닌 생도들이 군사 훈련을 계획하고 운영합니다. Training officer을 맡은 4학년 생도들이 훈련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들은 중대별로 후배들을 이끌고 훈련을 함께합니다. 단순히 훈련을 시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직접 훈련을 함께하며 동기, 후배들을 독려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강 시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필수 이수 수업이 아주 많아 공강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저학년 때 필수 이수 수업을 이수하고 나면 고학년이 될수록 공강 시간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 Q8 마지막으로 한국의 공군사관생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질문하고 싶은 생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와서 물어봐도 좋고, 다들 친하게 지내러 왔으니까 저를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년을 별로 신경 쓰지 않으니 누구나 부담감 없이 제 방에 놀러 오세요! 특히 미국 공군사관학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 많이 즐기고 재밌게 놀다가 오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에 12월까지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세요!

한미 양국은 굳건한 동맹체제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서 교류하며 협력하고 있다. 특히 항공우주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항공우주력 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항공우주 시대의 주역이 될 한미 공군사관생도의 교환 교육 프로그램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양국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도기자 73± 변선호, 이정욱  
7513290@mnd.go.kr

## 육군·해군사관학교 위탁교육

'22년도 하반기부터 72기 3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국내 사관학교 간 위탁교육이 시행 중이다. 공군사관학교는 지난 1학기 하계군사훈련 이후 위탁교육 희망자를 지원받아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에 파견할 생도를 각 1명씩 선발했다.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육군사관학교 교환학생은 4중대 박승현 생도가, 해군사관학교에는 6중대 팽호용 생도가 각각 선정되었다. 이들은 각각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에 파견되어 한 학기 동안 해당 사관학교에서 학과 수업 및 군사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사관학교 간 위탁교육은 타 사관학교의 교육 및 훈련 체계, 생도 생활, 문화 등 다양한 방면을 경험하고 교류함으로써 생도로서 지녀야 할 견문을 넓히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체득한 육군·해군사관학교의 특성은 향후 사관학교 자치 근무를 이행할 때 공군사관학교 발전 방향 구상에 훌륭한 밑거름이 된다. 또한, 타 군의 군사전략 체계를 이해하고 안보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육·해·공군이 유기적인 협력 작용을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사에서는 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 위탁교육에 각각 선발된 3학년 박승현 생도와 팽호용 생도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박승현 생도



팽호용 생도

### Q1 이번 위탁교육에 지원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박승현 생도** :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이후 1학년 중대 임원, 3학년 동기회장 등 많은 도전을 하며 쉽게 포기하지 않는 내적 강인함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육군사관학교 위탁교육도 저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익숙한 환경을 잠시 떠나, 한 학기 동안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지내는 기회를 통해 제 잠재력을 더욱 끌어올리고 싶어 지원하였습니다.

**팽호용 생도** : 공군사관학교에 비해 해군사관학교가 집과 가까운 점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웃음) 그리고 무엇보다 1, 2학년 당시 육군·해군사관학교 합동훈련 때 만났던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에 대해 좋은 기억이 남아있어, 그들과 함께하는 해사 생도 생활에 관심이 생겨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Q2 육·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의 비슷한 점/다른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승현 생도** : 어느 사관학교에 가더라도 일과가 쉬운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스케줄은 달라도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교수부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습니다.(웃음) 눈에 띄는 다른 점은 후배 생도와 선배 생도의 관계가 우리보다는 좀 더 친밀하다는 점입니다. '분대'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런지 선배 생도는 후배 생도를 좀 더 챙기고, 후배 생도는 선배 생도에게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팽호용 생도** : 대략적인 보고체계, 후배교육, 전반적인 일과에 있어서 많은 점이 비슷합니다. 저 역시 1, 2, 3차 자치 근무 기간을 거치며 바뀌는 '분대'라는 개념이 가장 신선했습니다. 한 번 정해지면 잘 바뀌지 않는 공군사관학교의 '라인' 문화와 달리,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차수마다 분대가 바뀌면서 다양한 선배들과 친해질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고 해사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 Q3 위탁교육 중 가장 기대되는 활동이나 훈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승현 생도** : 위탁교육에 임하면서 경험할 모든 것들이 기대됩니다. 한 학기라는 결코 짧은 시간 동안 타 사관학교 생도들과 의식주를 함께하고, 같이

땀 흘리면서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공군사관학교와 다른 것들을 적극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육사의 좋은 점들을 스핀 지처럼 흡수하고 싶습니다.

**팽호용 생도** : 가장 기대되는 활동은 오히려 공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되는 3학년 합동 훈련입니다.(웃음) 오랜만에 6중대 동기들의 얼굴을 볼 생각에 기대되며, 친해진 해군사관학교 동기들에게 공군사관학교의 곳곳을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 Q4 위탁교육을 통해 성취하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박승현 생도** :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 교환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장점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육군사관학교의 새로운 동기생들과 소중한 인연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 육군사관학교에서의 한 학기 생활을 통해 타 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임관 후에도 타 군과의 원활한 소통을 이어 나가는 데에 앞장설 것입니다.

**팽호용 생도** :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전반적으로 체력이 꽤 좋아 보여서 저 또한 그들과 함께 체력을 더 기르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소속되어 있는 복싱부와 바리스타 동아리에서 소중한 기억과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가고 싶습니다.

### Q5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박승현 생도** : 교환 생도는 단 1명이지만, 반대로 그 말은 그 1명이 공군사관학교의 얼굴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군사관학교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올바르게 생활하고, 육군사관학교에서의 한 학기 과정 중 모든 분야에서 으뜸이 되어 공사 생도에 대한 좋은 인식 남기고 오겠습니다!

**팽호용 생도** : 해군사관학교가 공군사관학교와 비교했을 때 세세한 것들은 다르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어 해사 생도들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운 공사로 복귀하기 전까지 해사 생도들과 더 많은 경험과 배움과 추억을 쌓고 싶습니다.

생도기자 73± 이창재  
7513344@mnd.go.kr

하늘을 배우자



# 날아오른 보라매와 제52시험평가전대

## KF-21 성능 테스트는 우리 손에!

생도기자 72± 김민성  
7513024@mnd.go.kr



2022년 7월 19일 사천기지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첫 초음속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초도비행에 성공하였다. 성공적으로 초도비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제52시험평가전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 제52시험평가전대

제52시험평가전대는 1991년 공군전투발전단 예하에 편성된 시험평가처를 모체로 한다. 이후 국산 항공기, 항공탑재장비, 항공무장, 전자장비, 지상무기체계, 무기체계 운용지원을 위한 지원장비 및 교육훈련체계 등 공군에서 운용할 모든 무기체계와 이에 따른 지원체계에 대한 시험평가를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99년 12월 독립 전대로 사천기지에서 창설되었다. 시험평가전대는 국외에서 도입되는 무기체계와 국내에서 개발하는 무기체계, 이미 도입되어 운용 중인 무기체계 및 지원체계의 성능 개량에 대한 운용시험평가도 수행한다. 시험평가전대 예하의 제281시험비행대대가 직접 장비들을 운용하여 시험평가 임무를 진행한다. 시험평가전대는 창설 이후 KT-1, KA-1, T-50, TA-50, FA-50, KGGB, MUAV 등의 국산 무기들을 개발, 개조하는 데에 기여하였으며, 현재는 KF-21 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 ● 개발시험비행 요원

각종 장비의 시험평가는 시험비행대대 소속의 개발시험비행 요원이 주축이 된다. 개발시험비행 요원은 조종사와 기술사로 나뉘는데 개발시험비행 조종사는 연구개발 중인 항공기를 조종하며 때로는 극한의 조건에서 항공기 성능의 한계를 시험하기도 한다. 개발시험비행 조종사의 임무는 높은 수준의 비행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7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 및 4기 리더 이상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조종사만이 개발시험비행 교육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개발시험비행 기술사는 후방석조종사/항법사 등의 조종자원을 선발해 교육하며 시험비행 계획, 자료획득, 분석업무와 시험통제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과거에는 개발시험비행 요원 교육과정 전부를 국외로 위탁했지만, 2007년부터 개발시험비행 기술사 교육과정을 국내에서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2014년부터는 개발시험비행 조종사 교육과정 역시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다. 국내 교육과정에서는 항공기 성능, 비행특성 및 항공전자 시스템에 대한 이론교육과 비행을 병행하는



KF-21 보라매의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제52시험평가전대 안준현 중령(진)

(방위사업청 제공)



약 1년에 걸친 교육을 진행한다. 국내 교육 수료 이후에는 약 6개월간의 국외 보수과정을 위해 미국 혹은 캐나다의 국제시험비행학교에 입과하여 항공전자시스템, 무장 등에 대한 시험비행기법 교육을 추가로 이수한다.

### ● 개발시험비행

개발 중인 항공기의 시제기가 제작되면 시제기의 안전과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비행은 필수다. 시험비행을 통해 항공기가 목표 성능에 도달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양산 전에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시험비행은 일반적인 비행과는 차원이 다른 체계적이고 철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다. 먼저 개발하는 무기체계 소요에 관한 필요성, 운영 개념, 작전 운영성능 및 전력화 지원요소 등이 기술된 요구 운영 능력서를 기준으로 체계개발 수행 계획을 기술한 체계개발 계획서를 제작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험비행 담당자는 TEMP(시험평가 기본계획서)를 작성한다. TEMP를 통해 시험평가계획서를 작성한 이후 TRR(시험준비검토회), TPWG(시험계획 실무회의), TRB/SRB(기술/안전검토회) 등 각 회의 결과에 따라 일일비행 계획서인 테스트 카드를 제작한다. 개발시험비행 조종사는 실제 비행 전 주어진 테스트 카드에 수록된 임무를 시뮬레이터에 탑승하여 수행함으로써 최종적인 시험비행 시나리오 점검을 한다. 비행 당



창공을 가르는 KF-21의 첫 비행

(방위사업청 제공)

일 이륙 5시간 전에 관련 요원이 집합하여 시험비행 관련 절차들을 점검하고 2시간 전에 비행 브리핑을 시작한다. 시험비행 시행 후 각종 정보 데이터들은 원격 계측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측정되며, 조종사가 비행 중 직접 느껴 원격으로는 수집할 수 없는 정보를 비행 이후 디브리핑 과정을 통해 수집한다. 이후 개발 요원들은 수집된 모든 정보들을 분석하며 조종사는 비행 후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결과 얻어지는 시험비행 정보들은 다시 개발 과정에 제공되어 개발 완료까지 최고의 성능을 내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개발시험비행 요원들은 저마다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경험이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아직 검증되지 않은 무기체계의 안전성과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을 희생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가 안심하고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한다. 더불어 제52시험평가전대의 KF-21의 성능 점검이 무사히 이루어지고, 자랑스러운 우리 전투기 개발사에 제52시험평가전대라는 이름이 길이 빛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52시험평가전대 전대마크



제281시험비행대대 대대마크

감수: 제281시험비행대대 소령 정익승

## 오피니언

## 나를 사랑, 해보자

생도기자 73± 정지원  
7513371@mnd.go.kr



MBTI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MBTI는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이는 MZ세대를 필두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타고 퍼져 나갔다. 사람들이 왜 MBTI에 열광할까? 그것은 아주 간단하다. 나와 상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MBTI가 완전히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인 기준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MBTI를 통해 새로 만난 사람, 자신이 더 알고 싶어 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의 창구를 열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즉,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는 사회에서 개인이 가진 성향과약을 통해 그들의 본질에 다가가고 이해하려는 것이다. MBTI에는 총 4가지 기준이 있다. 그 중 겉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인 E(외향성)와 I(내향성)를 가지고 MZ세대 사이에서는 서로에게 “너 E야? 아니면 I야?”라고 묻는 방식으로 서로를 파악하는 ‘웃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외향성과 내향성에 대해 쉽게 접하며 각각의 성향이 가진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다. 나는 자라면서 내향성을 더 많이 가지게 된 유형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외향성에 대한 동경이 마음속 깊이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심리학 수업 때 ‘콰이어트’라는 도서를 읽게 되었고 내향성을 사랑하고자 하였다.

내향성과 외향성을 가진 서로 다른 두 사람을 위해 짧게나마 두 성향을 이야기해보려 한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무언가에 열광하는 면모를 가지며 목표지향적이다. 그들의 열광은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연료가 되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들은 목표의식이란 열광으로부터가 아니라 침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생각한다. 정리

하자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불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자극에 과감히 뛰어들지만, 내향적인 사람들은 한발 뒤에서 문제를 탐색하고 자극 넘어 더 중요할지 모를 부수적인 문제들을 고려한다.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은 열의에 대한 온도가 다를 뿐이며, 이는 열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생각의 차이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사람들 서로가 가진 특성과 재능이 다르기에 우린 서로 다른 생각과 관점, 능력으로 서로 다른 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다른 행동들이 모여 사회라는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다. 나의 방식은 그들의 방식과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었는데 나와 다른 사람들의 방식을 부러워하고 동경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회에서 조직을 꾸리고, 커다란 배를 몰며 미지의 보물섬으로의 항해를 떠나는 선장이다. 나는 나의 내면세계 속에서 조용히 사유하며 작은 조각배를 타고 나만의 보물섬을 향해 나아가는 뱃사공이다. 눈에 보이는 보상이 아니라 나만이 존재하는 내면의 세계에서 충만감을 얻는다. 또,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에 빠져들어 그 속에서 무한한 에너지를 분출해 낸다. 이렇게 에너지를 분출하는 모습을 통해 나는 내향성과 외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렸다. 외향적인 사람은 목표를 향해 나갈 때 필요한 에너지를 외부로 분출하는 모습을 보이며, 때때로 외부에서 변화의 에너지를 얻는다.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은 목표를 향해 나갈 때 필요한 에너지를 내면에서 매만지고, 다루는 모습을 보이며 변화의 에너지 또한 내면의 사유를 통해 얻는다. 이것이 독서를 통해 정의한 나만의 외향성/내향성의 개념이다.

외향성과 내향성은 그저 내가 가진 기질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늦게 깨달았다. 미리 알

았더라면 내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말이다. 다른 사람과 달리, 타인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매우 강한 자극으로 받아들여지기에 나만의 공간이 필요했다. 자유로이 교류할 수 있지만, 그저 혼자 있고 싶을 때는 나만의 공간으로 사라질 수 있는 환경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었다. 고독을 수반한 집중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독함 그 가운데서 대상에 대해 집중하는 과정도 필요했다. 작업이든 생각 회로의 과정이든 나에게 있어서는 스스로를 드러내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내가 타인과 관계 맺음에 서투른 사람이라 단정 짓고 살았다.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이 되려 본심과는 달리 행동하거나, 외향성을 흉내 내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이질감을 느꼈지만, 사회가 원하는 외향성을 따라 과장되게 행동하고 본래의 나를 과소평가하기도 했다. 나만의 공간, 사유의 시간 속에 빠져있는 것이 나를 위한 최적의 상태였는데 말이다.

독서를 통해 나의 성향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해서 외향적인 성향에 대한 동경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그들의 성향이 가진 고유의 장점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결핍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핍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들과 차별화된 나만의 장점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그 특성을 활용해보려 한다.

생도대에 들어오기 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생도대는 보물섬이야. 그렇기에 네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어. 그러니 너만의 보물섬을 찾길 바라!’라고. 나는 나만의 목표와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를 지휘해 나갈 것이다. 외딴 섬처럼 혼자만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다른 이들의 손을 빌리고, 여러 사회에 적응해 나가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극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것이다. 외향성에 대한 동경으로 나를 지나치게 바꾸려고 애쓰지 않고 나의 내향성을 품은 채 생도대의 보물섬을 향한 항해를 새로이 떠나보려 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내향성을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이들에게도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 오피니언

##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을 위하여

수습기자 74± 이영균  
7513546@mnd.go.kr



1월 말에 시작한 기초군사훈련을 필두로 1학과와 하계군사훈련, 그리고 하계휴가를 거쳐 어느덧 2학기에 접어들었다. 그 사이 ‘군인, 그리고 사관생도’에 대해 어렵풋이만 알던 내가 어느덧 공군사관생도로 조금씩 녹아들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나를 돌이켜 보면 생도 생활이나 규율 등에 어느 정도 적응하였을 뿐, 사관생도와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치관이 아직은 정립되지 않았음을 느낀다. 군인에 대한 막연한 선망으로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했지만, 여기서 ‘어떠한 것을 배워서 어떻게 사용하고, 그 결과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깊이 있게 고민하지 못했던 것 같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가치관을 ‘인간이 삶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 좋고, 옳고,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 관점’이라고 정의한다. 스스로 선택한

가치관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인생의 잣대임과 동시에 본인의 정체성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살면서 인생에서 수많은 위기와 장애물과 맞닥뜨린다. 그때마다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과 도전을 하며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간다. 따라서 만약 그 가치관이 옳지 않다면, 언젠가는 내 가족과 이웃, 나아가 이 사회에까지 피해를 주게 될 수도 있다. 또는, 공공의 가치를 우선시하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좇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군인과 생도가 반드시 지양(止揚)해야 할 것이다. 즉, 우리에게 올바른 가치관 정립이 그만큼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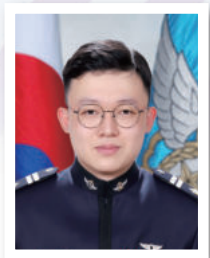
그렇기에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올바른 가치관의정립은 특히

바쁜 일과 속에 사는 생도에게 어쩌면 버겁고도 먼 주제로 느껴질 수도 있다. 나 또한 아직 어떠한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 온전히 알지 못해 올바른 가치관을 찾기 위하여 수많은 고민 중이다. 그러던 중 니체의 명언은 내가 답을 찾는 큰 도움이 되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는 니체의 말처럼 우리가 학업, 훈련과 생도 생활 등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내가 기초군사 훈련 당시 작성했던 수양록을 보면서 나의 원동력은 가족이었음을 기억해냈다. 특히 ‘가족들에게 자랑스러운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힘든 훈련을 버틸 수 있었음을. 그리고 이것이 내게 ‘무엇이 옳고,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도 확인하였다. 가족들을 떠올리면 옳은 길이 비록 험난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 불의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동시에 공군사관생도로서 지켜야 할 명예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올바른 가치관을 찾아 인생의 험난함 속에서도 마음을 다잡으며 옳르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금융문맹 탈출하기



생도기자 73± 전영욱  
7513360@mnd.go.kr

금융문맹이란,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돈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 또는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은 “글을 모르는 문맹은 사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만, 금융을 모르는 것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생존 자체가 어려우므로 금융문맹이 문맹보다 더 위험한 상태”라고 표현했다.

글로벌 데이터 수집기관인 ‘월드 데이터 아틀라스(World Data Atla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금융문맹률은 66%다. 3명 중 2명은 금융에 대해서 문맹에 가깝다는 얘기다. 한국은 조사 대상 국가 142개 중 81위에 그쳤다. 대한민국의 금융문맹률이 비교적 높은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주된 원인은 많은 선진국에서 정규교육 과정에 금융과 관련한 교육이 포함되어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규교육 과정에서 제대로 된 금융교육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는 결국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독학으로 금융지식을 습득하였음을 의미

하는 것이다. 여기서 본인이 금융문맹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해보자. [경상수지, 코스피, 코스닥, 공공채, 국채, 기준금리, 빅맥지수, 환율,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한계비용, 대체재, 단기금융시장, 기축통화] 위에 제시된 경제용어 중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50% 미만이라면 당신은 금융문맹일 가능성이 높다.

금융문맹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금융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야 한다. 경제용어를 쉽게 설명해주거나 금융문맹을 탈출하는 방법을 다룬 책도 시중에 많다. 독서를 좋아한다면 금융지식과 관련된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책은 「존리의 금융문맹 탈출」이다.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이다. 금융문맹 탈출과 관련한 영상도 수백 가지가 넘는다. 이 외에도 여러 방법도 있겠지만, 독서와 유튜브 영상 시청 두 가지 방법이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방법이 아닐까 싶다.

물론 금융문맹률을 낮추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금융교육국이라는 별도의 부서를 두어 금융회사와 교육기관을 연결해 특별 교육을 주선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8년에 「경제금융용어 700선」이라는 책자를 발행했다. 국민에게 올바른 경제 개념에 대해서 알리고 그 이해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작게는 개인 자산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크게는 경제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자 함이다. 해당 책자는 한국은행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금융문맹에서 벗어나면 함부로 부채를 만들지 않으며, 올바른 경제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기자들은 경제를 핑계 삼아 정치적 편향 기사를 쉽게 쓰지 못할 것이다.

혹, 테스트 결과 본인이 금융문맹임을 확인하게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경제금융용어 700선」부터 다운로드 하는 것은 어떨까?

# Welcome to KAFA English Development Session

**What is EDS :** An Established English Education Program at the Cadet's Leisure  
**For Whom :** Any Cadet Who Wants to Improve their English Skills

**When :** Any Time during Class Hours

**How to Reserve :** 1. by Phone No.043-290-6387~9      ☎ Native Speakers  
043-290-6374, 6379      ☎ English Education Support Office  
2. by Related Board on 4th floor of 단재관  
3. by Personal Visit





## 클라이밍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유난히도 뜨겁고 길었던 하계군사훈련, 그리고 순식간에 지나간 방학을 뒤로하고 돌아온 생도대에는 다시 활력이 넘친다.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쌀쌀한 바람을 느끼며,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여름도 저물고 이제 가을이 다가움을 실감한다. 어느덧 올해 세 번째를 맞이한 동아리 탐방 코너. 럭비 동아리와 공사신문사를 거쳐 클라이밍 동아리다. 이번 동아리 소개 코너에서는 생도 기자 74± 나호빈, 오서현 생도가 직접 클라이밍도 해보고 동아리 부원 및 강사를 인터뷰하였다.

### 동아리장 인터뷰

클라이밍 동아리 부장 72± 황형원

Q\_ 동아리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클라이밍 동아리는 매주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시간에 운영 중입니다. 클라이밍 자체가 아직도 다소 생소한 스포츠라 생도들 역시 초반에는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는데, 강사님들이 설명도 많이 해주셔서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선뜻 접하기 쉽지 않은 스포츠를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저희 클라이밍 동아리만의 특별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Q\_ 클라이밍 동아리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우선 비용적인 측면에서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개인이 클라이밍을 배우려면 금전적으로 부담이 큰데, 공군사관학교에서는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클라이밍이 상당한 운동량을 자랑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생도들의 근력과 체력증진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Q\_ 클라이밍 동아리를 선택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작년 여름방학 때 클라이밍 동아리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신설 동아리라 관심이 갔었는데, 한 번 시도해보았다가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매력에 빠져 지금까지 이 동아리에 몸담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운동량도 상당할 뿐 아니라,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최적의 경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고민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 동아리부원 인터뷰

부원 74± 송예영

Q\_ 클라이밍 동아리를 선택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처음 접해보는 색다른 운동이라 선택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서 유행하는 운동 중 하나라서 그런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했구요. 한칸 한칸 올라갈 때마다 성취감을 느껴 뿌듯합니다. 내년 즈음 정주시에 실내 클라이밍 센터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더 높은 벽에서 클라이밍을 체험할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부원 74± 김민호

Q\_ 동아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종전까지 계속 실패해왔던 난이도를 바로 오늘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려워서 계속 실패했던 벽을 완등했을 때의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클라이밍을 하다 보면 유연성과 근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단련한다면 반드시 완등에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 완등의 쾌감을 느끼기 위해 클라이밍을 합니다.



### 강사 인터뷰

정미영 강사

Q\_ 평소에 생도들을 가르칠 때 어떤 점을 중점으로 교육하시나요?

우선 클라이밍을 접해본 생도가 많이 없어서 클라이밍을 소개한다는 마음으로 생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웃음) 생도들에게 클라이밍을 많이 알릴 수 있어 기쁘고, 더 많은 생도들이 클라이밍을 취미로 많이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업할 때는 안전을 가장 중점에 둡니다. 학년별로 근력이나 여러 조건이 다르기에 학년별로 구분해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생도들이 클라이밍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합니다.

Q\_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 클라이밍 동아리를 추천해주세요!

클라이밍은 기본적으로 근력운동이지만, 단순 반복이 아닌 다양하게 설계된 코스에서 다양성을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 지루하지 않게 근력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자 매력이에요. 퍼즐이나 게임처럼 그 사람의 체격이나 근력에 맞게 전략을 세워야 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추락하지 않고 완등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공했을 때의 성취감이 정말 크답니다. 벽면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라 긴장감과 스릴이 넘쳐 재밌게 근력운동을 즐길 수 있어요. 최근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되고 있어 접근성이 높아졌으니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벽을 타는 단순한 운동으로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정반대였다! 발을 디뎌야 하는 위치나 방향,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생각해야 할 게 정말이지 많았다. 강사님이 클라이밍을 퍼즐과 게임에 비유하신 의도가 바로 이해가 될 정도로 상당히 전략적인 스포츠였다. 비록 쉬운 난이도였지만 코스를 성공했을 때의 쾌감을 직접 느껴보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클라이밍 만의 매력에 빠지기 충분했다. 외부에서 진행되는 만큼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인상 깊었다.

수습기자 74± 나호빈 / 74± 오서현  
7513474@mnd.go.kr

성무만평

75기 새싹들, 면접 화이팅!  
75기 새싹들의 면접을 응원합니다.



생도기자 73± 이세희

## 추천도서

##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우리

## 휴먼카인드로 바라본 우리의 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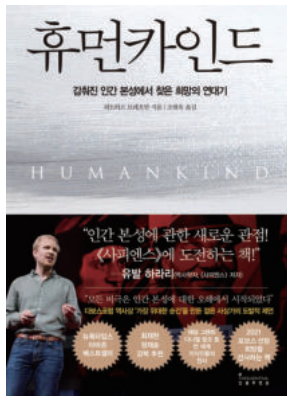
“인간은 필요하지 않으면 절대 선행을 행하지 않는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문장이다. 인간 본성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현실주의적 관점이 이 한 문장에 직관적으로 담겨 있다.

인간의 본성을 마키아벨리식의 관점으로 인식한 작품들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접하기 쉽다. 대표적인 예가 사실주의적 서사문학의 명료함을 잘 표현했다는 이유로 노벨문학상의 주인공이 된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이다. 주목할 점은 그 ‘사실주의적’이라는 평가가 소년들이 무인도에 고립된 후 만들어낸 악육강식과 각자 도생의 잔혹한 질서를 지칭한다는 것이다. 사실 인간 본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다. 특히 스탠리 밀그램의 전기충격 실험은 ‘악의 평범함’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과학실험이다. 적절한 상황적 조건이 성립되면 평범한 인간도 언제든 타인에게 거리낌 없이 고통을 가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단편적으로만 보면 인간은 필요할 때만 선행을 한다는 다소 암울한 저 주장이 진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역시도 이 입장을 강하게 믿고 있었다. 『휴먼카인드』라는 책을 읽기 전까지는 말이다.

『휴먼카인드』는 “인간은 악하다.”라는 명제에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 해왔던 사례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며 논리적으로 반박한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어쩌면 ‘휴먼 이즈 카인드(Human is Kind)’, 즉 인간인 우리가 선할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하는 책이다.

그렇다면 저자가 인간의 선함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실험체가 죽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상부의 명령이라는 이유로 전기의자의 전압 출력을 올리는 우리 인간을 선할지도 모른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스탠리 밀그램의 전기의자 실험결과는 사실이다. 이

「휴먼카인드」  
뤼트허르 브레흐만

전기의자 실험이 보여준 데이터는 조작되지 않았다. 하지만 휴먼카인드의 저자 뢰트허르 브리허만은 이 실험을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뜯어 보며 실험의 과정과 해석이 조작되었음을 발견했다. 전기의자 실험의 피실험자, 즉 상대의 고통을 보면서도 전기의자의 전압을 올린 잔인한 사람들은 단순한 명령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다. 실험자들은 전압을 올리는 행위가 인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행위라고 피실험자에게 거듭 강조하였다. 그 말에 지속적으로 설득당한 피실험자들은 죄책감을 느끼며 의자의 전압을 올렸다. 이에 관련된 모든 내용은 녹음되었고, 실험자가 이용한 스크립트는 기록되어 있다. 악의 평범성을 증명한 잔인한 사람들은 사실 대의를 위한다는 명령하에 죄책감을 느끼며 전압을 올렸던 것이다. 실제로 설득의 과정을 생략한 실험에서는 대부분의

피실험자가 전압을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나아가 브리허만은 밀그램의 실험이 과정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조작되었음을 지적한다. 밀그램의 실험이 보여주는 결과의 해석은 악의 평범성이 아닌, 선으로 가장한 악에 우리는 속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브리허만은 인류의 본성 중 하나로 선으로 가장한 악에 속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의 주장의 대표적인 예시는 전쟁터의 군인들이다. 전쟁터의 군인은 단순히 이데올로기로 싸우지 않는다. 그들은 적에 대한 증오로만 싸우지 않는다. 그들은 함께 싸우는 전우를 위해 싸운다. 미국 남북전쟁, 두 번의 세계대전과 같은 여러 전쟁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증명되었다. 그들은 전우애라는 선을 위해 전쟁이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사실 그의 주장에 대한 예시는 그리 멀리 있지 않다. 공군사관학교의 중대 대항전만 봐도 알 수 있다. 무용기 대회, 지용중대 선발을 위해 사관생도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단순히 특전 때문이 아니다. 타 중대에 대한 단순한 경쟁심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중대에 대한 애착심, 중대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중대 간 경쟁의 원동력은 경쟁의 원천이 선함으로부터 온다는 대표적인 예시이다.

휴먼카인드는 인간이 선할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합리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이 책은 우리 자신이 선하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플라시보 효과, 노시보 효과와 같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래서 이 책을 독자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다. 인간에 대한 관점이 넓어지고 비판적 사고의 힘을 기를 수 있으며, 과학, 역사책을 읽으며 느끼기 쉽지 않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감정까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수습기자 74± 정연제  
7513579@mnd.go.kr

## Tip

공군 사관생도  
2차 시험을 위한 조언

지난 7월 30일, 공군사관학교에서 제75기 사관생도를 모집하기 위한 1차 시험을 실시했다. 바로 국어, 영어, 수학 등 총 3과목에 대한 학력평가다. 이후 1차 시험에 합격한 지원자들은 공군사관학교에서 8월 29부터 10월 14일 사이, 각 조별로 1박 2일 일정의 2차 시험을 치르게 된다. 1일 차에는 신체검사가, 2일 차에는 체력평가와 면접이 진행된다. 같은 과정을 경험한 선배 사관생도의 입장에서, 2차 시험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을 수험생들을 위해 몇 가지 간단한 조언을 준비하였다.

## ☑ 신체검사 준비와 체력시험 대비는?

공군사관학교 신체검사는 공군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모집 요강을 확인한 후 ‘불합격 사유가 될 만한 신체상의 문제’들은 사전에 민간 병원을 통해 진료, 또는 관리를 받아 신체검사 당일 불합격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군사관학교 홈페이지 신체검사 QnA를 통해서 신체검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수도 있다. 특히 공군사관학교 신체검사에서 안과 검사가 정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의 눈 상태를 상세히 확인한 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일 차에 진행되는 체력평가는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1.5km 달리기 등 총 3종목을 평가한다.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체력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기에 평소 체력평가를 준비는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력평가는 오전에 진행되기 때문에 달리기 연습은 주로 오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인터벌 트레이닝을 통해 달리기 연습을 하면 단기간에 급격한 체력향상을 경험할 수 있기에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이다. 특히 달리기는 다른 종목보다 기록단축이 쉬운 편이라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팔굽혀펴기나 윗몸일으키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 날 때마다 기록을 측정하고 그 횟수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연습을 하면 더 효과적이다.

## ☑ 면접 준비는 어떻게?

면접에서는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단정한 복장과 머리 스타일을 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하지만 사관학교 면접이라고 해서 반드시 딱딱하거나 긴장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 오히려 면접관들은 가식적이지 않은 학생 신분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에도 정직하고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다. 면접은 크게 자기소개서 및 생활기록부 관련 질문과 국가 안보관에 관한 질문으로 나뉜다. 면접을 시작하기 전 자신의 지원동기서나 생활기록부를 읽어보는 것이 좋다. 지원동기는 특히 잘 준비해야 한다. 또한,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나 봉사활동에 대한 질문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준비가 필요하다. 국가 안보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주변국과의 관계나 최근의 주요 이슈 관련하여 공부하는 것을 추천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건전하고 상식적인 가치관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면 된다.

수습기자 74± 박광혁  
7513485@mnd.go.kr